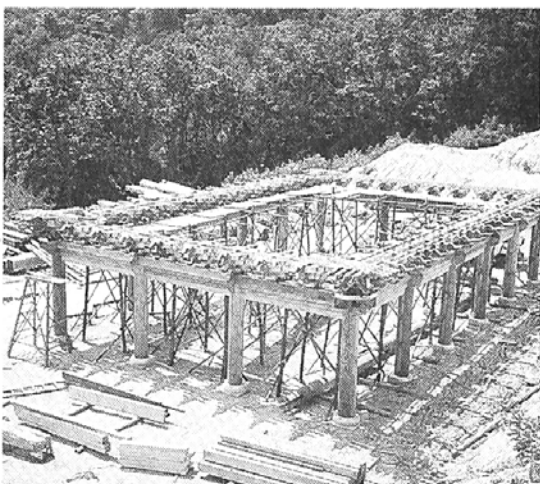




◇ 성불회원들은 연 2회에 걸쳐 '각 연구소'에서 우리차 시음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법 포교와 성불회원들의 신행의 장으로 사용하게 될 태전사(6천여평 부지에 115평 5층 규모)는 오는 11월 2일 상량식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 연구소별 지부화 '10년째 초발심'

한국과학기술의 산실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불자들의 신행도 일인 성불회(회장 류우석)는 조직체계와 신행활동이 탄탄하기로 정평이 나왔다.

성불회는 지난 87년 불법창달과 연구원들의 포교를 목적으로 표준연구원, 화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 8개 연구소가 주축이 돼 일초스님(동학사 강주)을 지도사로 구성(화학연구소)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해 창립했다. 특히 성불회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을 성불회원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각 연구소별 조차조직을 서둘렀다. 이는 연구원들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 신행활동을 하는 만큼 각 연구소의 특성을 살린 조직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불회는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들이 창립 당시 초발

## 탐방

### 대전연구단지 '성불회'

## 법주사지원·4백여회원 합심 법당 태전사 건립 정기법회·회보발간등 신행활발... '가족불자화' 실천

심의 자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회원수도 배가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같은 결과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구도부, 포교부, 총무부, 사회부 등이 조직돼 있고 각 연구소의 특성화 일환으로 연구소를 지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각 지부장 및 부서장의 결집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성불회의 특

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스님들조차도 어렵게 여기는 도량건립사업을 회원들 스스로 완만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탄탄한 조직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성불회가 법당건립을 발원한 것은 '한국화학회연구소 성불회'로 첫 출발을 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시작된 법당건립사업은 88년 법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92년 법주사에서 사찰건립불사를 지원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연구단지 부근인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산27-15번지 총 6천여평의 부지에 불사증인 태전사는 1백15평의 법당을 비롯 5층 규모의 불교교육센터를 설립한다는

예를 올릴 정도로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성불회회원들은 불가를 정기적인 사찰순례를 비롯 수련법회, 특별법회, 어린이 한문교실, 회보 <인연>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또 매월 첫째주

## 타종교사례

가톨릭 서울대교구 직장인 전도

### 2백여 단체 등록... 특별본당설치 평신도운동 전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지난 93년 직장인 사목부(담당 이기양·이재열신부)를 신설 '직장인 사목 특별본당', '직장 사도적 소공동체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직장인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대교구 내에는 많은 직장 교우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직장사목부에 등록된 단체는 2백여곳에 이른다. 이들 직장인 사도적 단체들은 '복음묵상 나누기' 등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또 직장내에서 예비자들을 모으고 인근 성당에서 신부나 수녀를 초빙해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미사와 예비자교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사목부는 지난 3월부터 '복음나누기 7단계'를 이용한 소공동체 운영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봄 가을로 실시하고 있는 피정은 프로그램과 장소 등 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직접 준비함으로써 바쁜 업무와 적은 인원으로 피정을 망설이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 본당이 인근 직장

인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례를 위해 늦은 저녁미사를 신설하고 예비자 교리를 원하는 직장 사도적 단체에는 교리교사를 파견하는 등 직장인 사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에 직장사목을 위한 특별본당과 전담신부를 임명하고 직장인을 위한 미사개설, 예비자 교리지도, 교육장소 제공 등을 돕고 있어 직장교우회·결성된 직장본 아니라 기타단체들의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필요일에는 각지부 임원회의를 개최해 회원확보, 태전사불사, 신행활동 등의 성불회 활성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회원들로 구성된 연꽃회는 서예, 꽃꽂이, 다도, 합창단의 활동을 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 어린이법회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폭넓은 신행활동을 펴고 있다. 이는 성불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가족의 불자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몇몇분자들이 중심이 돼 어렵사리 활동하다가 퇴직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단체조차도 유명무실해지는 신행단체에 비하면 성불회조직의 건실함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는 11월 2일이면 성불회원들의 숙원사업인 태전사불사의 서곡을 알리는 상량식이 봉행된다. 4백여 성불회원들은 태전사불사를 시작으로 정법포교와 대전권 불교활성화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땀을 흘린다는 금강과 같은 원력을 세우 놓고 있다.

<근>

김중근 기자

직장이란 우리 일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삶의 터전이다. 직장인들은 꿈을 꾸어도 직장과 관련된 꿈을 꾸니 삶의 전부가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삭막한 직장생활이라면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직장단위의 취미활동이나 신행활동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에 있어 종적 원칙으로 유효할 수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에 따른 환경적 요소를 극대화 시켜



국토개발원 법우회 김의식씨

### 매일 점심시간 이용 좌선삼매 회원마다 '재적사찰갯기' 전개

가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개발연구원 불교법우회(국불회) 회원에게는 직장상 연구자를 위한 사회과학적 수단과 집중적인 연구무늬가 요구된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는 교리적인 연구와 머리를 식혀갈 참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받기되었다.

국불회는 지난 11년간 매일 정가법회와 분기별 야외법회를 추진하여 왔으며 하루도 거름없이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 몇명의 회원들이 '좌선삼매'를 나누고 있다. 나는 이 좌선모임에서 큰 힘을 얻어 사찰(보림사)내에 시민선방을 개설하게 되었고 일요일마다 도반들과 함께 선정을 즐기고 있다. 그동안 국불회에서는 법문한

내용을 모아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심유도강설> <보리살타의 지혜> 등을 비롯 <국불회 10년사>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불회에서는 직장법회의 한계성을 느껴 회원 개개인의 한 사람씩의 운동을 잠정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그 이유는 교리연구의 한계와 좌선위주의 한정성을 기존사찰에서 상호보완해왔다는 의지에서였다. 사찰에서도 사찰내에 직장인법회를 주선하여 주었으면하는 바람이 있다. 이와같은 관계정립이 된다면 직장법회에서는 생활불교, 사찰에서는 수행불교가 진작되어 가리라 본다.

### 직장·직능법회 동참불자 신행이야기

부산불교문인협회가 창립된 것은 1989년이었다. 풀어진 교통사고로 돌아간 시인 원광스님의 발원으로 불자문인들은 모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기 위해 모든 1백여명의 문학도들, 그들의 정진은 오직 글쓰는 일이었다. 경전은 모두 시(詩)이고 문학과 철학임을 나도 공부하고 만민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천장을 의문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



부산불교문인협회 김문숙고문

### 경전서 얻은 감동 그대로 글로 '실상과문학' 발간등 문서포교

도둑만 같지 못하다. 한 글자를 알려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실상과 문학> 발간은 우리 회원들의 수행의 산물이었다. 1년에 4권, 못하면 3권을 빠짐없이 발간하는 일은 참으로 힘이 드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 해냈다.

부산에는 우리 마음의 고향인 대사가 많다. 삼남의 으뜸인 통도사를 필두로 범어사, 내원사, 부남사, 장안사와 대소 수백을 헤아리는 절이 우리 수도의 장이며, 큰스님들이 우리의 스승이다. 수도의 장이 있고 스승이 계시니 우리는 정진할 수 있어 행복하다. 그러나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해 우매한 증생의 무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칭 불자문인도 많다. 그래서 더욱 열심 글쓰기를 권하고 경(經)읽기에 열중한다. 불교문학세미나도 열고 사찰순례도 하고 보시의 실천도 한다.

우리 불교문인협회 여성클럽은 여성의 상담실 '여성의 전화'에서 무의시(無畏施) 보시를 하고 있다. 미약한 힘이지만 고민하는 여성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무의시보시를 아무 바램 없이 행하고 있다.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은 글을 통하여, 이타행의 실천행을 통하여 겸손한 불제자가 되기를 발심한다.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주)아림DM



##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발송·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각종 DM, 법외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잡지·키랄로그·사적·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발송·종이포장·비닐포장·수축포장·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